



## 증례 IV-2

# 다수치가 상실된 환자에서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이용한 포괄적 보철수복 증례

조영진\*,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보철학교실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었거나 심한 마모, 파절, 심한 우식증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 환자의 구강 건강의 증진이나 기능적, 심미적 만족을 위해서 완전구강회복을 시행 할 수 있다.

이 때 부분무치악인 환자에서는 고정성 보철물과 함께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하거나 고정성 국소의치의 pontic으로 수복, 혹은 가철성 보철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상실된 치아의 수복 및 우식 치아의 치료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첫 내원 당시 상악의 좌측 소,대구치 및 하악의 우측 견치, 구치부의 결손과 함께 하악 무치악부에 대합되는 상악치아들의 심한 정출, 그리고 잔존된

상, 하악 전치들의 치아우식증 소견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낮아진 교합고경을 나타내고 있었다. 임상검사와 방사선검사를 통한 진단 과정을 거쳐서 골질이 우수한 하악의 무치악부 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상악은 magnetic attachment를 이용한 가철성 국소의치를 이용하여 완전구강회복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치료계획 하에 장기적인 치료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심미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기능적 회복을 이룰 수 있었기에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